

하이리움산업, 평택서 이송·저장 등 ‘액화수소 메카’ 만든다

포승국가산단 신사옥 준공식
수소액화기, 저장탱크 등 제조
美 차트인더스트리와 기술 제휴
글로벌 공략, 기업공개도 계획

대한민국에서 액화수소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하이리움산업이 경기 평택에 신사옥을 준공하면서 ‘액화수소 메카’를 만들고 있다.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생산부터 저장, 이송, 안전 기술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분야에서 ‘최초’의 타이틀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최근 독일에서 세계 최장인 5시간 비행하는 수소연료드론을 시연한데 이어 내년엔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남미 브라질까지 대서양을 횡단하는 도전도 한다. 내년 하반기엔 관련업계 최초로 기업공개(IPO)도 한다.

하이리움산업은 6일 오전 평택 포승에서 신사옥 준공식을 가졌다.

김서영 하이리움산업 대표는 “하이리움산업의 기술로 만든 수소충전소가 미국, 호주 등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액화수소 드론이 전세계 하늘을 떠다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액화수소 기술 리더로서 미래 수소 모빌리티 시대의 주역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리움산업은 6일 오전 경기 평택 포승산업단지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하이리움산업 평택 신사옥은 8264㎡ 대지에 총 연면적 4958㎡의 건물을 갖추고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서 주문받은 액화수소 관련 각종 제품을 본격 생산한다.

독자 개발한 하루 100kg을 생산할 수 있는 수소액화기, 미국 차트인더스트리와 기술 제휴한 탱크트레이러, 3리터(L)에서 6000L 규모의 다양한 액화수소탱크를 이곳 평택에서 만든다. 기존엔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수입하던 제품의 국산화를 위한 발판도 신사옥 준공을 통해 평택에서 다지게 된다.

김서영 대표는 “탱크트레이러는 국내의 경우 최대 100대 정도면 충분하다. 한번 만들면 20년은 유행할 수 있다”면서 “현재 미국에서 탱크트레이러 초기 물량을 만들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이곳 평택공장에서 제조해 국내시장에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리움산업은 차트인더스트리와 수출입시 쓰는 ISO탱크, 수소충전소용 지상저장탱크 등도 향후 추가 제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액화수소를 연구하던 김 대표는 2014년 지금의 하이리움산업을 창업했다.

시장도 없고, 전문가도 찾기 쉽지 않은 불모지인 한국에서 액화수소분야를 선도해보겠다는 일념에서다.

하이리움산업은 그동안 연구개발(R&D)에 주력해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특허협력조약(PTC)을 통해 41건(해외 10건)의 특허등록을 마쳤다. 해외 20건을 포함해 총 50건의 특허출원도 확보했다.

이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KDB산

업은행, 신한자산운용 등으로부터 35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받기도 했다.

R&D에 집중한 결과 성과물도 속속 나오고 있다. 외산 기준으로 대당 2억~3억원씩하는 액화수소펌프 국산화도 성공했다. 하루 100kg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액화기도 개발해 미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평택에 수소충전소를 운영해오고 있고, 제주 함덕에는 수전해 수소를 활용한 충전소를 시운전하고 있다.

5시간 비행이 가능한 하이리움산업의 액화수소드론은 육군 드론여단 ‘아미타이거’를 비롯해 SK E&S 등 기업에도 납품했다. 액화수소드론은 미국 알라카이(Alakai) 에어 택시, 캘리포

니아 포도농장 관찰용 등으로도 수출했다.

지난달엔 ‘제22회 독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독일 에센 정부의 초청을 받아 현지에서 액화수소 드론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때 선보인 6개의 날개와 길이 1.6m, 무게 20kg를 갖춘 헥사드론(HEXA Dron)은 12L의 기체수소연료를 사용해 장소 제한상 2시간 동안 체공했다.

김 대표는 “수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체 상태인 수소를 액체로 바꿔야한다. 일례로 54t 튜브트레이러로 울산에서 서울로 이송할 수 있는 수소는 단 250kg에 불과한데 액화수소는 3t까지 운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하이리움산업은 해외시장 추가 개척을 위해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법인을 설립했다. 최근엔 중국 상하이에도 거점을 구축했다.

하이리움산업이 연료분야를 담당한 드론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도전도 한다. 세네갈에서 브라질까지 비행하려면 48~72시간을 떠 있어야 한다. 전기를 사용하는 기존 드론은 상상할 수 없다. 대서양 횡단에 성공하면 세계 최초다. 하이리움산업은 국내에선 업계 최초로 증권시장 상장도 도전한다. 모두 내년에 벌어질 일들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진공 “공공데이터 누구나 이용하세요”

‘공공데이터 설명-BOOK’ 발간
홈페이지 접속자 현황 등 36건 개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설명-BOOK’을 발간했다.

6일 중진공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 등 민간 서비스 개발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 수요가 증

가함에 따라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매년 개방하고 있다.

올해는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 지원현황’, ‘홈페이지 접속자 현황’ 등 36건의 신규 데이터를 개방했다.

이번에 발간된 설명-BOOK은 공공데이터에 대해 잘 모르거나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담았다.

특히 중진공이 보유한 데이터 종류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데이터를 전자책 형태로 발간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데이터포털 소개 ▲중진공 주요사업 안내 ▲개방데이터 분류체계별 현황 설명 ▲데이터 형식별 사용법 ▲공공데이터의 활용방법 ▲정책자금 융자제의 대상 업종, 청년창업사관학교 인프라 현황 등이 담겼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소상공인 수출 지원 나선다

부산·울산·경남 8개 대학교와 맞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8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소상공인 수출지원과 충전식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나선다.

6일 소진공에 따르면 부산외국어대학교와 ‘유망 소상공인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우수한 제품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출 전문 인력 및 해외시장 경험이 부족한 지역의 유망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진출교육, 시장개척 및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은 디지털특성화대학 사업을 통해 수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수출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글로벌마케터프로그램과 디지털교육과정을 수료후 창업한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외대는 글로벌(Glocal)마케터 사업을 통해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단기 해외영업 인턴십 프로그램과 국가별 제품 홍보, 수출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에몬스, 뉴코지 침대·텔라 매트리스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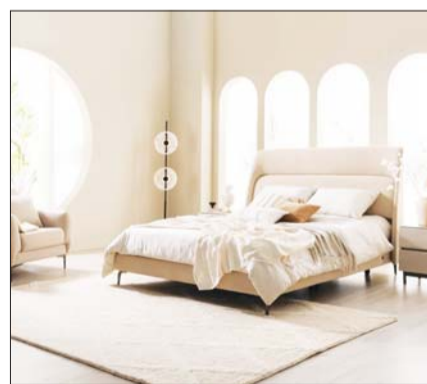
양질의 수면 환경 위한 다양한 모델

에몬스가 프리미엄 수면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뉴코지 침대(사진), ‘텔라 매트리스’ 등이 인기다.

6일 에몬스에 따르면 뉴코지 침대는 절개라인을 최소화한 디테일한 디자인과 사용성을 개선한 기능성 패브릭을 적용해 이지클린 기능을 갖추고 있다. 컬러도 다양하고 소재도 고객이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다양화했다. 에몬스 매트리스 판매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텔라 매트리스’는 내·외장재의 프리미엄화를 본격화한 제품으로, 에몬스의 스테디 셀러로 자리잡았다. 텔라 매트리스는 내장재를 고급화하면서도 경쟁력있는 가격을 갖췄다.

아울러 신중하게 선별한 소재와 내·외부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검증



에몬스 뉴코지침대.

받은 시험 성적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도가 높다. /김승호 기자

팅크웨어 ‘내셔널지오그래픽 AC10’ 출시

4K 60프레임 고화질 영상 구현

팅크웨어가 하이브리드 액션캠 ‘내셔널지오그래픽 AC10’을 출시했다. 6일 티ंक웨어에 따르면 ‘내셔널지오그래픽 AC10’은 4K 60프레임으로 고화질 영상 구현이 가능하며 전방 후면 듀얼LCD를 부착해 바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 65mm 초소형, 114g의 초경량 액션캠으로 휴대가 수월하며 빠른 열 방출이 가능한 올메탈 프레임으로 더운 여름철에도 발열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상태로 촬영할 수 있다. 강력한 자체 방수 기능과 전용 방수 케이스 사용 시에는 최대 30m까지 방수가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北, 대러 무기 제공하면 대가... 결정권자는 김정은” /사진 뉴스시스
▲바이든, 베트남 방문 앞두고 베트남 전 참전 용사에 명예 훈장 수여

▲‘中 금수조치 여파’ 日수산물 가격 하락... 가리비·해삼 등
▲“韓 강제징용 해법 발표 반년... 日, 윤 대통령 리더십 환영”



▲ 우크라이로 망명한 러군 헬기 조종사 “10개월전 계획했다” /사진 뉴스시스
▲ 유엔, 세계 14국 구호기금 부족분 1668억원 긴급 배정